

#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다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 2. 아침묵상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  
전 6시 정각에 공개됩니다.

2026년 7월 5일 (663호)

9:1: 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나는 확신합니다.



## 지난 주 (6/28/26)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명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955.00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윤한진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갈라디아서 4:1-7	다함께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종에서 아들로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7/12/26	7/19/26
유영환	김주연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1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개인교사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반응은 언제나 현실에 갇혀서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광야로 이끌어가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늘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아웅성을 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목마름과 배고픔은 실존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본질을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은 적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인해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 없이 이 공허함과 허무함을 무언가로 채우고자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종교가 되기도 하고 소유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면 그 대상이 바뀔 뿐 본질은 언제나 인간의 허전함을 달래기 위한 스스로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율법주의입니다. 인간은 종교마저도 인간의 행위와 업적으로 둔갑시켜서 그것을 통해 스스로의 만족을 누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언급하면서 또 다시 율법주의의 늪에 빠지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로 자신들이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켜 낼 수 없으며, 그것을 실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왜 주어진 것입니까? 어찌피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하나님은 왜 만드셨고, 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즉 율법은 필요없는 과정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율법이 곧 개인교사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로마인들에게 개인교사는 종들 중에서 배운 종들을 불러다가 자신의 자식을 가르치게 하고 훈육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때로는 개인교사가 자식에게 매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것까지 주인이 허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언제나 개인교사에게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때 개인교사는 그 역할을 다하고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배경을 알고 있던 당시 성도들은 율법이 개인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뒤로 물러서게 되었음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개인교사가 필요없고, 우리는 주인의 아들이라서 주인이 가진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계획이고,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